

## 0C-I-6. Late failure로 인한 explantation 증례 및 고찰

윤우혁\*, 김완수, 박재영, 김운상, 피성희,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Background

이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예지성 있는 술식으로 인정받아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인한 합병증과 실패가 증가하고 있고, 이 발생율은 임상가와 치료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998년 Esposito M는 임플란트 실패를 시기에 따라 early failure와 late failure로 구분하였다. early failure는 임플란트 식립 후 적절한 골유착을 얻지 못하여 기능적 부하를 가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로서, 최근 임플란트 재료와 술식의 발전으로 골유착 실패의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반면 late failure는 골유착은 얻었으나 기능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골유착을 유지 하지 못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해야하는 경우로서,

이는 술자의 malpractice로 인해 나타날 수 도 있지만, 정상적인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식립 후 여러 이유로 late failure로 판단되어 explanation된 임플란트 증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 Materials and method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overloading에 의한 골유착 소실, Abutment screw fracture, fixture fracture, 식립방향이 잘못된 이유 등으로 explantation 한 후 재식립한 증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Results and Conclusion

임플란트 실패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고, 예기치 않은 이유로 인한 실패의 발생 또한 피할 수 없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 깊은 환자의 선택과 지속적인 recall, 임플란트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생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실패율을 더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플란트 실패 기준에 대한 Consensus가 필요하고, 실패한 임플란트를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더 정형화된 protocol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